

## 2012년, 여성의 미래는 투쟁하는 여성의 힘으로! 104주년 3·8 여성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과제



3.8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봉기에서 시작되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쉼 없이 일하고도 노동자, 시민으로서 그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었던 여성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리고 현재 달력에 표기될 정도의 보편적인 '여성기념일'로 상징되고 있다. 그러나 104년 전의 여성들이 투쟁한 역사를 계승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에게 꽃 한 송이 건네며 가사노동의 수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또 몇몇 정치인들에게 여성의 삶과 미래를 맡기는 것도 아니다. 현재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과 구조에 맞서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요구를 제기하고 이를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주목하자

여성노동자의 투쟁이 곳곳에서 조직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의 6개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는 턱없이 낮게 책정되는 최저임금을 돌파하고자 집단교섭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동시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폐해에 맞선 투쟁으로 의미가 있다. 3월 한 달 동안 총력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청소·경비노동자의 투쟁

은 전체 노동자 운동이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보육교사의 투쟁에도 불씨가 붙기 시작했다. 그동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아온 보육교사들은 '교사의 소명'만으로 참으며 일 해왔다. 하지만 몇 년째 계속된 실질임금 동결,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육교사 임금동결안은 보육교사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보육교사들의 투쟁을 계기로 간병, 요양 등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사회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청소, 보육노동자 외에도, 매년 봄을 해고와 함께 맞게 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조직되고 있다. 또 장시간 노동 외에도 감정노동을 제공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마트 노동자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거리에서 농성을 지키는 재능학습지 교사들, 노조탄압과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KEC 노동자의 투쟁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 총대선 국면을 여성노동자 투쟁의 시기로

올해 총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정치에 환멸을 느낀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해 정당 통합, 인적 쇄신 등 선거 이벤트를 추진하면서 각종 복지정책을 쏘

아내고 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것 같다. 일부 운동세력은 유권자 운동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권 정치 안에서 법·제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법·제도 개선을 위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인 세력과 연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들은 노동유연화를, 특히 여성에게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오히려 불안정한 파트타임 일자리 양산에 기여했던 점, 사회서비스 확충이 결국 돌봄서비스를 시장화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밀어 넣은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여성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몇몇 후보에게 실행이 불확실한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과 연대로 정치인들이 고민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표몰이가 필요한 시즌에서는 사탕발림이 강해지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여성의 삶과 노동의 권리가 개선된 것은 정치인들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104년 전부터 투쟁해 온 여성들의 의지와 행동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한국은 과로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시간 일하는 사회다. 그러나 노동자가 기계도 아닌 사람인데 밤낮 가리지 않고 장시간 일을 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심지어 암 발병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야간노동의 폐해를 인정하며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도 최근 장시간 노동의 심각성을 깨닫고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한다. 특히 여성들의 일과 가사 양립을 위해 단시간 근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여성의 단시간 저임금 비정규 노동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리는 정부 방안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박카스 마시면서 피곤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작년 '밤에는 잠잠 자자!'는 요구를 걸고 투쟁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처럼 투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평등한 노동시간단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8시간만 일해도, 먹고 살만큼의 임금이 필요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임금이 낮아서다. 기본임금이 워낙 낮아 초과근로를 해야 그나마 먹고 살만큼 된다는 것이다.

단적인 사례로 간병노동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간병노동자는 환자를 24시간 돌보며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다. 1주에 총 144시간 노동하는데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3천 원이 못된다. 심지어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여성노동자가 저임금을 받는 원인은 남편이 벌어들 테니 반찬값만 받아도 된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소위 여성 직종은 남성들에 비해 덜 힘들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취급 받아서 임금이 적다.

따라서 여성이 하는 일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여성의 임금 역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인상하는 것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퇴근해도 집안일은 산더미, 공적 사회서비스가 필요해!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여성에게 집은 편히 쉴 곳이 아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상을 차리고, 빨래와 청소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일터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적은 임금을 받는 유연근무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뜰이나 임금이 적고 고용이 불안한 여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실망스러운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집안일은 고스란히 여성들의 몫이다.

직장과 가정에서 일해야 하는 여성들의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돈 있는 사람들만 서비스 받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이어야 한다. 성평등한 노동시간 단축이 되려면 일터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공적인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요구가 필요하다.

# 여성이 노동조합의 당당한 주인으로 서기 위하여 여성조합원대회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하자!

민주노총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다. 그중에서도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은 낮다.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에 더 많이 가입하고, 노동조합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가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노동조합이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또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모아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는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 과제기도 하다.

## 여성이 노동조합의 주인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여성들이 노동자로서, 또 엄마이자 아내로서 살아가며 겪는 경험을 털어놓으며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각기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결하고 연대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나 마트노동자가 있지만 밤늦게까지 어린이집과 대형마트가 열려있길 원하는 여성노동자도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간병노동자가 있지만 간병비 때문에 버거워하는 여성노동자도 있다.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면 같은 노동자이자 여성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돌봄노동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안정된 여성일자리와 생활임금 보장, 여성노동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권 보장 등 공동



으로 자본과 정부에게 요구해야 할 내용을 만들 수 있다.

## 지역별 여성조합원대회를 개최하자

많은 노동조합에서 여성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여성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여성 사업을 하고 싶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한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 여성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 다른 투쟁 사업장이나 지역 차원의 연대투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지금 특히 필요한 것은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이다. 작년과 재작년 서울에서 치러진 여성조합원대회와 같이 여성조합원들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여성조합원대회를 통해 여성노동자 공동의 요구를 만들고, 연대의 폭을 넓혀보자. 각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여성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를 주장하자.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 단결과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여성조합원대회를 조직하자.